



청량리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청량리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남겨진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적어져 갈수록, 점점 다 타버려 재만 남겨지는 것이, 소명을 다한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흔히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지나면 훗날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실 상이 더 크심을 알기에 저는 이곳에서 추억으로 남겨질 기억까지도 차라리 잊혀질 수 있는 은총을 감히 청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목자로서 가면, 저는 그곳 공동체의 신앙적 성숙과 분위기를 재빨리 느낄 수 있는 몇 가지의 표지를 봅니다.
하나는 미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고해소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동체의 배려를 통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미사는 지상에서 드리는 하느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미사는 하느님 나라를 앞당겨 체험하며,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과 감사가 공동체를 통해서 경건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경건한 미사 안에서 자주 하느님을 만나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해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해를 하는 신자가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통회하여 결심하고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가 몇 시간이라도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고해소가 편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때, 고해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은 거룩하게 되고, 사제는 기쁜 마음으로 의로운 죄인들을 기다리며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점에서 우리 본당은 모두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배려하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본당에 부임하고서부터 어린이들이 기쁘게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고심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방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현재의 유아방은 어린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곳이 아닌, 미사성제와 무관한 장소의 집단 놀이방에 불과합니다. 본래 유아방은 교육적이어

야 하고, 쾌적해야 하며,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는 데 저는 1년이 걸렸습니다. 성가대석 위쪽 부분, 성전 위층 좌우측 좌석, 과거 유아방이 있었던 현 고해소자리 등등 모두 고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제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미사를 참례하면서 그들 중에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의 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올바른 신앙교육은 훗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 나갈 힘과 용기를 하느님께 청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은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가장 좋은 자리에 배려해야 합니다. 귀퉁이로 내몰아 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제대가 잘 보이면서도 여유 있는 장소인 성전 앞 우측 자리를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려면 어린이와 부모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계단이나 통로, 비상계단을 활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외부 계단의 설치를 생각해야 했고, 성당의 차가운 외형을 상쇄시킬 조화로운 외부 원형계단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방은 그동안 교우들이 염원하였던 성체 조배실을 평상시에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흥송으로 내부를 마감하여 따뜻한 느낌을 살리면서 부빙가를 조화시키고, 전면을 천연 대리석으로 소박하면서도 성체를 모시기에 송구하지 않도록 기도의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창고 안에 방치되었던 과거의 14처를 다시 살려서 부착하고, 기술적으로 미사 중에 성전에서 유아방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성체조배 중에는 조배실에서 성전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고안하였습니다. 방음은 물론이고, 냉난방시설도 모두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협의-수정-보완-협의를 부단히 거쳤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잘 할 수 없을 만큼 심혈을 기울인 2년간의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거셌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쯤에 있는 것 일까요?



그날, 124위 순교자 시복

2014년 8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24위 순교자 시복미사

미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기뻐하십니까?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와 치유와 화해를 체험하십니까?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진심으로 배려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믿지 않는 세력들과만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저는 예수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린양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자처럼 맹수로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 예수님처럼 제대위의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합시다.

2014년 10월 의정부 한마음에서 연례피정 중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라파엘 신부

파파 프란치스코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미사 참례기



어둠을 가르며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던 2014년 8월 16일 새벽 4시 30분. 여러 개의 출입문 중 한 문에 이르러 갖고 있던 가방에서 모든 소지품을 쏟아내며 막대봉으로 앞 뒤 온몸이 스캔된 후 광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날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집전의 시복 미사를 드리는 날이었다.

‘하늘 문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내 영혼이 스캔될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맑음과 밝음의 영혼, 유리 바다와 같은 깨끗함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 세상의 어떤 흠도 티도 갖고 갈 수 없는 하늘나라. 무리를 지어 정해진 자리로 이동해가며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자리에 앉아 묵주알을 돌리며 성모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날이 밝아 교황님이 서소문 성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곳곳에 있는 커다란 전광판에 인파 가득한 광화문 광장이 비추어졌다. 이윽고 교황님의 카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가슴이 쿵광거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운 좋게 교황님과 마주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했다. 그 때의 감격이란! 활짝 웃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마치 선하신 예수님을 뵈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바 파파, 비바 파파” 외침이 저절로 나왔다. 아! 평화의 사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순간도 흘러버릴 수가 없

었다.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과 평신도인 순교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이 이어져 온 이 나라를 칭찬하신 교황님의 강론을 들을 수 있었다. 시복식이 진행될 때 전광판에는 124명의 순교자가 비추어졌다. 그때 나도 한국의 103위 성인들 그리고 124위 복자들과 함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며 하늘나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과 천상의 군단들이 그리고 지상의 우리 모두가 노래하던 그 때를 나는 못 잊을 것 같다.

미사시간 내내 8월의 뜨거운 태양이 구름에 적당히 가려져 전혀 덥지 않았음도 주님의 사랑이었다. 가슴 벅찬 은총을 가득히 담고 앞도 뒤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인파를 헤치며 집으로 오면서 순교가 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교가 뭘까? 정리가 잘되지 않지만 생각해본다.

생활과 환경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겨 보리라.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에도 주님께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승리하리라.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기뻐하리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또 착



124위 순교자 시복미사 집전을 위하여 입장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환호하는 신자들

한 사마리아인 흉내라도 내보며 모두를 사랑해보자고, 일상을 주님께 의탁하며 빛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자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고 다짐해본다. 지금은 적색순교가 아니라 백색순교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맛보고 느껴보라고 광화문 광장에 불러주신 그 날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용히 찬미기도를 드려본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정자 데레사

행복대학의 사랑 만들기



2014년 12월 5일 행복대학 종강식에서 합창하는 어르신 학생들

언제나 신나고 즐겁게 웃음꽃이 피어 온 청량리성당 노인대학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대학’ 보다는 성서와 함께 인생 회고를 통해 행복한 건강을 찾는 곳으로서, 이계철 라파엘 주임신부님께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청량리성당 행복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부를수록 기쁘고 행복해지는 명칭입니다.

청량리성당 행복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티베리아 봉사팀, 어르신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르신들께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이끄미 교사들, 이끄미 교사를 딸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어르신 학생들과 함께 이름 그대로 행복이 가득한 대학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노심조사 관심을 기울이시는 수녀님, 묵묵히 무엇이 필요할까 하며 멀리서 지켜봐 주시는 신부님, 내 부모님처럼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사목위원 및 각 단체장님들의 사랑으로 행복대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교재로 복음말씀을 나누는 1교시 수업을 시작해서, 미술치료, 꽃꽂이, 멜로디언 등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하는 2교시 수업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수업을 마치고 티베리아 봉사팀에서 정성들여 만들어 주신 점심식사를 합니다. 마태오복음 말씀을 읽고 말씀과 삶을 연계시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복음 나눔을 할 때는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공동체 나눔의 의미를 기쁘게 맞이하시는 어르신 한분 한분이 행복대학 분위기를 한층 더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부부가 함께 오시는 어르신 모습에는 행복과 사

랑이 가득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부럽기도 합니다. 성경공부와 함께 어르신들의 체험한 긍정적이고 즐거웠던 기억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자존감 회복, 우울감 극복, 생활의 활력을 갖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봉사자들도 미래의 삶을 그려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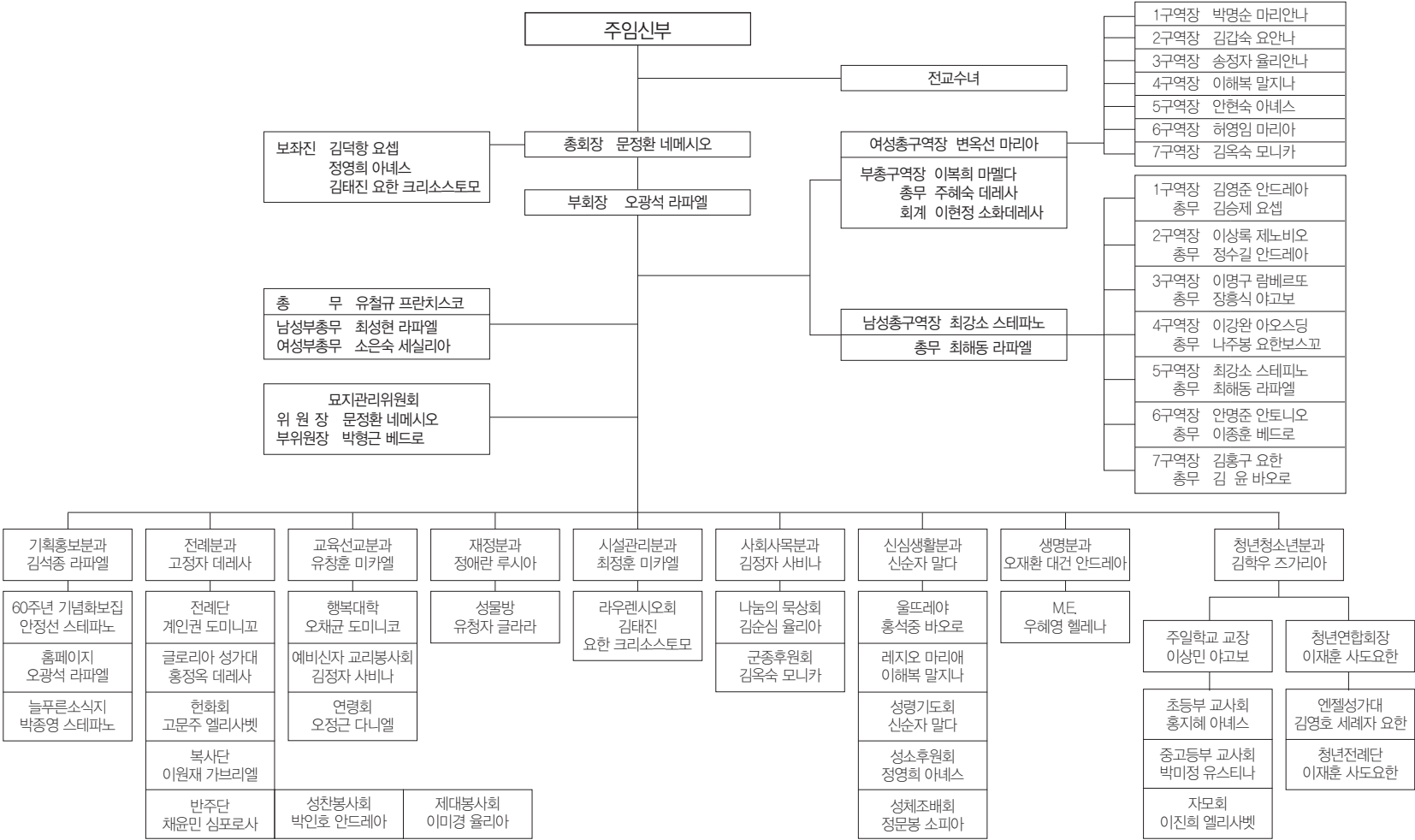
청량리 행복대학은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룡점정이란 말은 중요한 부분을 채워 넣어 완성시킨다는 의미이지요. 100세 시대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하느님이 주신 새하얀 마음의 화폭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한 폭의 그림을 행복대학에서 그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 행복, 기쁨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청량리성당 행복대학입니다.

우혜영 헬레나



'축' 청량리성당 제19대 사목협의회 출범

2015년 3월 15일(주일) 임시 사목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총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청량리성당 제19대 사목협의회가 2015년 4월부터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청량리성당 자모회의 행복나눔

자모회가 하는 일은 각 본당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량리성당 자모회는 규모나 능력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협의(狹義)의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량리성당의 막내 성인단체로서 어른들도 돕고 본당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인 모임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성당 자모회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성탄절에는 완전히 망가져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춤도 추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부활절 때에는 솜씨는 없지만 듣지도 못하는 거대한 달걀을 3개나 만들어 대성전 앞을 꾸몄다. 다행히 기획한 것보다 결과물이 잘 나와 스스로 뿌듯해하기도 했다.

한편, 자모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간식은 어떤 의미일까? 명확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도 미사를 드리거나 본당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라는 (속된 표현으로) '미끼'가 아닌가 한다. 자모회는 간식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교회로 꺾어내어 미사를 드리도록 하고, 성경말씀을 배우며 또래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청소년 사목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름 신앙학교와 캠프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캠핑을 접목시켜 바베큐 파티를 열기도 하였다. 본당에서 열린 신앙학교

는 규모가 작아 나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평하였으나, 용소막성당에서의 캠프는 큰 행사이다 보니 준비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었고, 자모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땀벌에서 고기 굽기를 도와주신 신부님, 수녀님, 사목회장님과 임원 분들, 그리고 언제나 자모회의 든든한 뺑이 되어주시는 라우렌시오회,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본당의 여러 단체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작은 기적'으로 기억된다.

지난 9월에는 대강당 주방의 모든 물건을 다 들어내고 뺑직지근하게 대청소를 하였고, 10월 정기음악회 때는 100여명의 참가자와 손님들의 식사를 준비하였고, 그간 많은 도움을 받아온 본당 여러 어른들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김치전을 두 대야나 부쳐 내놓기도 하였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자모회 회원들은 또 다음 행사를 위해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자모회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는 처음부터 마침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가능하였으며, 부족한 자모회를 무언의 미소로 지켜보아 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시는 사목회를 비롯한 각 단체, 그리고 썸짓돈을



2014년 7월 강원도 원주 용소막성당에서 열린 여름신앙학교 · 캠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음식 준비하는 자모회 회원들과 신부님

내밀며 커피 사먹으라고 웃어 주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참여해 온 자모회 회원 모두가 있어 가능했다. 한편으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모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새겨들어 더욱 발전적인 자모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모회는 루카복음 10장에서의 마르타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보듯이, 교회단체의 활동은 모두가 중요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주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하신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다.

정지은 아드리아

한마음수련원에서 야외미사



2014년 10월 5일 의정부 한마음수련원에서 열린 야외미사 및 운동회에 참석한 신자들

2014년 10월 5일 아침 8시 30분. 본당 신자 350여 명은 9대의 관광버스에 구역별로 나눠 타고 의정부에 있는 한마음수련원으로 출발하였다. 모두 상기된 얼굴에 기대가 어렸다. 예정된 시각에 출발한 버스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쐬며 9시 40분 쯤 수련원에 당도하였다. 아장거리는 어린 아이부터 다소 느린 걸음걸이의 형제자매님까지 본당 모든 교우는 그날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먹거리를 들고 잔디가 곱게 깔린 운동장에 도착하였다.

10시 30분에 야외미사가 시작되었다. 신부님의 강론은 인상적으로 짧았다. 본당 신자들의 들뜬 마음을 배려하심이 틀림없다. 미사 후 구역별로 신부님 수녀님과 기념촬영을 하였는데 모두들 즐거운 모습이다. 뒤쪽에 있는 가로등에 말벌들이 집을 짓느라 부산하다. 마치 자기들 숫자보다 더 많은 군중에 대한 시위인가?

사진을 찍으면서 계인권 도미니코 형제님이 준비한 몸풀기댄스를 한 후에 준비한 보물찾기를 하였다. 숨겨진 보물은 이미 재빠른 분들이 다 찾아버리고, 밤줍기에 여념이 없는 자매님들이 많다. 두어 되 주는 자매님이 자랑이다. 내려와 보니 수녀님과 사목회장께서 보물찾기 선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축구 골대 쪽에서는 제법 솜씨 좋은 자모회장이 아이들과 더불어 축구시합 중이다. 안전에 대비해 지원 나온 간호사 자매님이 벌에 쏘이지 않게 조심해 달라고 방송하란다. 한 분이 쏘였는데 비상약품은 물과스뿐이라고. 아무 일 없을 것인데 기우에 불과하다.

첫 번째 게임은 신발 벗어 던지기인데, 자매님들이 훨씬 멀리 차 던졌다. 멀리 멀리 공중에 차 올려 그려놓은 금 건너 통에 넣어 상품을 두 개씩 타 간 자매님이 여러 분이다.

두 번째 게임은 구역별 열 명씩 나와 젓가락으로 양파링을 전달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 건네는 분은 끈지발을, 받는 분은 무릎을 낮춰, 젓가락을 타고 자연스레 내려가도록 팍 흘리는 모습이 진지하다. 모두들 어린 아йт 적의 동심으로 돌아가 힘을 합하였다. 우승은 청소년들이 차지하였다. 세월의

흐름이 섭리이다.

세 번째 게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계주였다. 부상을 우려하여 첫 번째 주자는 자매님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한 자매님이 엄하게 항의하였다. 네 명의 주자 중에 자매는 왜 한 명뿐이냐고. 자매님들의 의식이 얼마나 활발하신가? 보호한답시는 생각이 부자연스럽다.

코너링 부분을 동글게 잘 앉아서 트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의 끝에 이르렀으니 우왕좌왕하거나 짐중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모두 한갓 우려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시절 계주할 때 본대로 앉아주시라 부탁하자마자 금시, 정말 금시, 아주 멋진 트랙이 완성되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자매님들은 신발도 벗는 등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소녀시절의 야성을 뽐냈으며, 첫 번째 배턴 터치부터 실수가 계속되기도 하여 어처구니없이 순위가 바뀌는 탄식과 환호가 교차하였다. 모두가 즐거워 웃고 또 웃었다. 특히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를 더 돌기로 하였는데, 1위와 큰 차이가 나있던 2등의 즈가리아 형제님은 쫓 먹던 힘을 다하여 땀 끝에 결승점을 20여 미터 남기고 추월 직전 넘어져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시 일어나 뛰어 끝내는 면하였다. 용맹할 진저.

종합 1위는 7구역이 차지하였으며, 모두들 기분 좋은 하루였다. 기분 유쾌한 야외미사, 찬미 받으소서. 아멘.

김석종 라파엘

작은 소망이 큰 기적을

안녕하세요. 베트남 며느리를 맞아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본당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힘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 본당 이야기입니다. 2014년 어느 날 베트남의 사돈댁과 통화를 하던 중 며느리 오빠로부터 빈흥성당의 성전 건립을 시작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과 함께 성전 건립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탁하며 서툰 발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였을 때 우리는 웃고 말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낱가에 맴돌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눔의 묵상회』 월례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기회를 얻었고 토의안건으로 채택되어 좋은 의견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베트남 빈흥성당의 주임신부님으로부터 우리 본당 주임신부님께 성전 건립에 대한 협조요청문을 보내왔습니다. 베트남 남단 미토교구에 소속된 빈흥성당은 40년 동안 성당이 없었던 곳으로서, 매주 신자들이 60km나 멀리 떨어진 성당까지 걸어가서 미사를 드려야 했기에, 2006년에 공소를 지어 1,600명의 신자가 미사를 드려 왔지만, 허술하게 지어진 목조건물이라서 비가 세고 붕괴 위험이 있어 성당을 신축하게 되었다는 어려움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임신부님께서는 『나눔의 묵상회』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라고 하시며 2차 현금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회원들은 주일날 삼계탕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수익금을 모으는 계획을 세웠고, 한 회원은 핸드폰 방수카버 1,000개를 기증해 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 앞장서며 삼계탕을 열심히 팔았으며, 무겁고 힘든 일은 형제님들과 신자 분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삼계탕 300마리를 팔아서 수익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차 현금 때에 어느 분이 익명으로 500만원을 현금해 주셨고, 한 친목모임에서 300만원을 기부해 주신 덕분에 500만원을 예상하고 시작한 작은 소망은 1,500만원이라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청량리성당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 여러분
저희 본당의 신자였던 마리아가 청량리성당 신부님과 신자분들께 빈흥성당의 성전 건립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7월 20일 『나눔의 묵상회』 김순심 율리아씨를 통하여 14,464달러라는 귀한 성금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빈흥성당 신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곳 신자들은 성당 건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자 모두 주님 성전건립을 도울 수 있는 일이야말로 매우 축복이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량리성당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2014. 7. 20. 베트남 빈흥성당 호 민 두언 주임신부



2014년 7월 20일 베트남 빈흥성당을 방문하여(오른쪽 첫 번째가 호 민 두언 신부)

때마침 저희 가족이 베트남 사돈댁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주임신부님께서 미화 14,464달러로 환전해 주신 성금을 베트남 주임신부님께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 베트남 주임신부님은 주일마다 모금을 나가는데 한 번에 500달러쯤 모금한다면서 청량리성당 주임신부님, 수녀

님,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작은 씨앗 하나가 청량리성당에 뿌리 내리게 하시어 이렇게 큰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는 베트남 주임신부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

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위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나눔의 묵상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나눔의 묵상회』에서는 불우 이웃돕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커피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결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의 답소에 도움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 이 되어 드리고 싶은 회원들의 소망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심 율리아



사랑이신 주님께 감사를

오래 전에 무리를 한 탓인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짓기의 뒷바라지를 하고 완공이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은 넓고 일은 많고 아이들은 어리고, 큰 애는 고3이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약도 무용지물,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대학병원에 가도 확실한 병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집에 사는 친절한 아줌마가 도움도 주고 교회에 가자는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서 교회에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기도에 철야도 하면서 매달려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은 그치고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가는 새벽길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하고 마음을 돌리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성당에 있었습니다. 항상 가고픈 친정처럼 신부님이 친정아버지처럼 그리워지는 마음이.

사남매를 둔 저는 아프기 전에는 무척 바빴고, 성당에 가고 싶지만 신앙이 어려워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삼 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갈 고향처럼 못내 아쉬운 가슴을 안고 50일 기도를 하기로 다짐하고 새벽 다섯시면 교회로 향했습니다.

50일이 일주일쯤 남은 날 모임이 있어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신앙은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회에 빠져서 살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앞 성당에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며

의외의 제안을 해 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50일 새벽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헛되지 않으며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 장독 위에 맑은 물 떠놓고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를 올리시던 엄마의 간절함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개월이라는 긴 날을 예비 교리를 받으며 하얀 밀떡(성체)을 받아먹을 때까지 꼭 다니겠다는 신앙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성가 61번을 부르며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당을 찾았을 때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절도 잘 모르고 그 냉대함이란. 다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었지만 돌아 갈수가 없었으니까요. 하루하루 마음을 누르며 견디는 날들이 길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습관처럼 몸에 배고 마음에 배야 한다는 걸 점차 느끼면서 엄마들에게 부탁하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유아세례를 받고 피정이며 교육, 성령묵상에 끌려 다니다시피 다녀보았지만 체험일 뿐 신앙에는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속회도 다녀보고 시키는 대로 다 해 보았습니다. 그 때는 모든 것이 형식이었지만, 믿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 아~ 사랑. 머리에서 가슴까지 칠십년이 걸렸다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나는 칠백년이 걸리면 어쩌나 두려워진답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돌고돌아 모태에서 흙으로, 성경을 읽으며 신부님 강론을 들으며 온갖 교육을 통해 그 어렵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 이제 내 마음에 현존을 의식하며 묵상과

명상, 내 안에 계신 그 분을 향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무한한 대지처럼 우리는 한 생애를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날의 순교란 바른 말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반문해 봅니다.



이젠 낙엽진 가을 산야의 풍경처럼
노을진 석양의 뜨거운 햇살처럼
곱고 붉게 타는 듯한 마지막 열정을 다하여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내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내가 괴롭고 슬피 울 때
왜 나 혼자만 두고 가셨나요
원망도 했지요
사랑이신 주님
동행함을 옛날엔 미처 몰랐었네
저를 불러주고 택해주신 주님
당신을 알게 해주신 주님
저는 행운아인걸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신자 글라라

장례식은 축제라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런 글을 처음 써 보기도 하고 또 머릿속에는 환하지만 막상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도 망설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제 소개를 자화자찬까지 곁들여서 적나라하게 해야겠군요. 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IMF를 맞아 큰 손해를 보고 1997년 말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동양에서 최초로 대학에 장례지도학과라는 생소하고 이색적인 학과가 서울보건대학에 신설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상세히 알아 본 뒤 응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률이 8.7:1이어서 어렵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격자 발표 날 합격한 것을 알았습니다.

1999년에 사십 넘은 나이로 대학에 입학해 해서 젊은 사람들 따라 가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장학생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아가며 졸업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장례지도학 학사학위와 장례지도사, 시신위생사, 시신복원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노원 을지병원에 수석 장례지도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출근하면 하루 평균 네댓 분의 시신이 안치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약 2,000여분의 시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똑 같은 분이 한 분도 안계십니다. 무슨 원한에 사무쳐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툅~뜨고 계신 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 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입을 썉~벌리고 계신 분, 사고사로 형체를 알아보기 못할 정도로 찢겨지신 분, 온갖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분, 이런 분들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머리 감기고 목욕시키고 남성은 면도도 해드리고, 여성분들은 화장까지

해서 깨끗하고 예쁘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은 아주 깨끗하게 편안한 모습으로 입가에 미소까지 머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다보면 종교별로 예식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호 빈소에서는 묵탁소리와 함께 염불소리가 들리고, 2호실에서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3호실에서는 빈소에 둘러 앉아 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뭔가 느낀 바가 달랐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절에 자주 다닌 덕분에 40대 초에는 『대한불교사암총연합회』 법사(法師)로서 혜일(慧日)이라는 법명(法名)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어느 할머니의 모습과 빈소에 빙 둘러앉아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해 연도하는 모습이 호감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천주교를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어느 날 김정자 아네스 자매님을 우연히 만나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청량리성당으로 가서 교리 신청을 하고 6개월 동안 교리공부를 열심히 해서 2008년에 세례를 받아 드디어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던 아내는 통신교리로 공부를 해서 세례를 받아 지금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에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느냐? 또 어떻게 부

활하여 하느님 나라로 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 성당 입구의 서각대에 새겨진 복음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그야말로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 27)”

명심보감에 있는 이런 글이 생각나네요. 인무백세인 왕작천년계(人無百歲人 枉作千年計). “백살을 사는 사람이 없는데, 부질없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라는 말인데, 움켜쥐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생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부자가 부자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에게 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루카 6, 38)”

저는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000여분을 보내드리면서 한 분도 뭔가 가지고 가는 분을 못 보았습니다. 상(喪)을 당했을 때, 망자의 지인들이 호상(好喪)이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호상이라는 뜻은 좋은 분이었는데 상을 당하셨구나! 하는 뜻입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가는 마지막 예식이 장례식이라면 슬픔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장례식은 축제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홍식 야고보

* 본당설립 60주년의 해 시목목표 *

성경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여 생활화 합시다.
 평일미사를 자주 참례합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합시다.

교리 봉사자의 자세

먼저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회에서의 봉사란 첫째,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둘째, 이웃들의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채워 주는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일을 뜻한다. 따라서 성직자와 수도자야 말고 진정한 봉사자이다.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예비신자교리반과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견진교리반에서 봉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적어 보고자 한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빌며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는 것이라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완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 20)”라는 성경말씀처럼 봉사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이 순수하고 즐거운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예비신자교리반 봉사를 할 때 봉사자들은 다시 한 번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읽고 교리공부도 더 해야 할 것이며 성경도의미를 생각하며 읽어야 할 것이다. 먼저, 예비신자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처음으로 성당을 찾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앞에서 멋쩍고 쑥스럽고 부끄러울 것이다. 우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줄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면 성경을 처음 펼쳐 보고 성가도 처음 불러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봉사자들은 교리교육시간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쑥스럽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리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성경구절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가 찾는 것도 도와주기도 한다. 나눔 시간에는 모든 예비신자들이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봉사자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신부님이나 수녀님에게 확인하면 될 것이다.

둘째, 견진교리반에서 교육을 받는 신자들은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 어느 정도 교리도 알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견진교육은 대림절 특강을 겸하고 있어 신부님께서 더욱 폭넓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 주기 때문에 교육생들은 내용을 노트하면서 열심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리교육이 끝나면 곧이어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교리에 관한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하는데, 교육

시간에 노트한 것을 펼쳐놓고 새로 알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도 하고 토론도 한다. 봉사자와 교육자생이 함께 격의 없이 복습을 한 다음에 복습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교리봉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을 읽되 숙제하는 학생처럼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며, 교리도 자주 읽어서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많은 교우들과 인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리도 많이 알게 되고 성경도 매일 주의를 기울여 읽게 된다. 이렇게 하루의 봉사가 끝나고 흐뭇하게 밀려오는 보람이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또한 자매 봉사자들은 주부로서 집안에서 할 일이 많은 텐데, 그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끝으로 너무 수고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최강소 스테파노

성서를 쓰면서

이계철 라파엘 주임신부님께서 온가족 함께 성서를 쓰라고 하시며 필사본은 책으로 묶어 주신다고 하셔서 화목한 성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성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목도 아프고 새끼손가락의 관절부위가 아파서 괜히 시작했나 생각하였지요. 집사람이 한쪽 정도 쓰고, 큰아들 내외와 손녀딸 규진이, 규선이, 규민이가 구약성서 말라키야서를 쓰고, 둘째며느리가 호세아서서를 쓰고 나서 2014년 11월 15일에 필사를 마감했습니다.

성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의 가정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둘째며느리가 마흔한 살이 되는 2014년 3월 14일 세 번째 아이로 손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큰 축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지요.

성 모세께서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받고 기쁨에 넘쳤듯이 저도 기쁨에 넘쳤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

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마태 7, 7).”

제가 35년 전 김포공항 우회도로 전기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에 트럭이 쏘아논 자갈더미에서 돌십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모양은 다이아몬드형이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돌십자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을 터인데, 하느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느님께 간청하였지요. 언젠가 시나이산의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돌을 구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였습니다. 30년쯤 전이었습니다. 처갓

집 식구들과 함께 용문사 개천으로 야유회를 가서 즐겁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가자고 하는데 무엇인가 갖고 싶어서 개천을 따라 올라가다가 물속에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지요. 다음날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집사람이 어제 주워 온 돌 위에 십자가 돌을 올려놓고 보라고 하더군요. 주어진 돌에는 무엇인가 올려놓을 수 있는 홈이 있었습니다. 그 돌 앞면에는 시나이산 모양의 골짜기가 있고, 뒷면은 절벽 그대로인 것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그 때부터 저희 집의 가보가 되었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탁연학 안드레아

공중급유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 최신예 전투기(KF-16D)들이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레스카까지 성공적으로 날아갔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좋은 생각과 목적을 함께 하는 사람끼리 협업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신앙생활

에서도 공중급유기처럼 그 역할을 주고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목적지인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까지 계속 급유를 받으며 간다면 참 좋겠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공중급유기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본당의 사목목표와 같이,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

하고 매일미사에 자주 참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부님의 강론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영성체를 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각종 피정 모임도 체험하고... 하다 보면 오늘날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머나먼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에 무사히 도착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루카 9, 62)”고 말씀하셨다.

아멘.

박인호 안드레아

청량리성당 늘푸른소식

발행인 주임신부 이계철 라파엘

편집인 기획홍보분과

인쇄 (주)금하기획

창간 2013년 12월 31일

주소 동대문구 홍릉로8길 14번지

전화 02-966-6760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laurentius

성탄예술제, 라우렌시오의 합창



2014년 12월27일 청량리성당 성탄예술제에 13명의 라우렌시오 형제들은 합창을 통해 아빠의 힘, 아빠의 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하였다.

김태진 요한 크리스소스토모 라오렌시오 회장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지휘자 및 반주자 선생님을 섭외하여 11월 셋째 주 부터 성탄예술제까지 매주 수요일에 성당에 모여서 연습을 하였다. 먼저 영화 <파파로티>로 유명한 <내게 행

복을 주는 사람>과 <징글벨> 두 곡을 테너와 베이스로 구분하여 맹연습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호흡이 맞지 않아 지휘자 선생님에게 많이 혼나기도 하였다.

성당에서의 합창연습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여 각자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항상 들어가며, 이번에 아빠들이 뭔가 보여주자는 열의를 불태웠다.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형제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니, 더더욱 정이 깊어지고 연습이 끝나면 가끔씩은 소주 일잔으로 분위기 up up.

연습 중에 들리신 우리 이계철 라파엘 신부님. 노래 한번 들어보시더니... 특유의 얇은 미소를 띠시며... 그렇게 불려서 되겠어요? 필 받은 13명의 라우렌시오 형제들은 더욱더 합창에 매진. 우린 끝까지 가는 거야~. 여기에 필 받으신 신부님 왈...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보다는 <아빠의 청춘>이 더 좋지 않을까요! 초지일관의 라우렌시오 형제들은 끝까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밀어 붙였다.

라우렌시오 형제들은 합창뿐 아니라, 성탄예술제에서 착용할 복장을 검정색 양복에 하얀색의 셔츠로 통일하고, 빨간색의 나비넥타이로 포인트를 주기로 하였다.

이영걸 모세

청량리성당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아버지모임인 라우렌시오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세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지면사정상 나머지 두 편의 글을 올리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신에 이런 글들은 언제든지 청량리성당 블로그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탈리아, 프랑스의 성지를 찾아서



바오로 사도 순교지인 로마 세 분수 성당(Chiesa di Tre Fontane) 앞에서

2014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태어나서 처음 유럽(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으로 해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모든 것이 경이롭고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한다.

왜 사람들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 성모마리아 대성당을 피렌체의 꽃봉오리라고 하였는지 궁금했는데, 향기로운 꽃의 도시 피렌체에 가서 보니 정말 꽃봉오리라고 불리울 만큼 아름다웠다. 그곳에서 산 조반니 세례당과 천국

의 문도 보고, 미켈란젤로 광장과 성 십자가 성당도 가보았는데, 성 십자가 성당은 어느 곳에 서서 사진을 찍든지 모두 한 쪽의 그림 같았으며, 꽃의 도시답게 하루를 아름답게 물들였다. 수녀님께서 천국의 문은 현재 우리나라 경복궁의 고궁박물관에 전시중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님의 이름으로 택하신 프란치스코 성인을 생각하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가르침이 있는 아씨시에 갔다. 성 마리아 성당의 제단은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낡은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클라라 성녀의 옷과 유해가 있는 클라라 성당은 너무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입은 옷가지 벗어 던지며 자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있는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갔다. 그곳에서 미사를 드릴 때 복사를 썼는데,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날아가는 듯하였다.

이어서 우리는 로마를 향해 떠났다. 로마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묻히시고 가톨릭 신앙인들이 숨어서 미사를 드렸던 카타콤바에 갔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은 들어가기 힘든 지하 4층의 무덤에서 미사를 드리고 복사를 썼는데 무섭기도 했지만 성스럽게 느껴졌다. 다음에 간 곳은 바오로 사도 순교지인 세 분수 성당이었는데, 그곳에는 바오로 사도의 일생을 그린 5~6개의 그림이 있었으며, 나는 그곳 한곳 한곳에서 모두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인지 내가 하늘나라의 문에 한 발짝 가까이 간 것 같았다. 또 세계 최초의 성당이며 사도들의 동상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만들어진 라테라노 성당,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린 자국을 헬레나 성녀가 가져와 만든 계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날 교황님이 계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하였으며, 낮 놓고 바라본 바티칸 박물관의 벽화와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뒤로하고 로

마를 떠났다.

프랑스에서는 성모님께서 열여덟번 발현하신 루르드 성지의 동굴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벨라멧다 성녀의 박물관과 생가에 갔다. 생가는 낡았지만 이상하게 멋져 보였다. 기적수에 침수를 했는데 차가워서 깜짝 놀랐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만 집중하였다. 성체강복을 참여한 후 야간 로사리오 행렬에도 참석하였는데, 한밤중 촛불을 든 행렬이 너무 아름답고 경건했다. 나는 우리 팀에서 함께한 여섯 명과 성가대와 성모송 한번을 맡았다. 성모송을 할 때는 너무 떨렸지만 자신 있게 하였으며 벨라멧다 성녀처럼 성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오전에는 루르드 성지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로사리오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그 성당 내부에는 고통, 환희, 영광의 신비가 밖에는 빛의 신비가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다웠다. 그리고 우리는 폐제베를 타고 6시간을 달려 파리로 갔다.

아침 일찍 리지외에 있는 소화 데레사 성당에 갔다. 소화 데레사 성당은 각도와 방향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것 같아 멋졌으며, 성당 아래에 있는 지하성당에서 기도도 드리고 소화 데레사 성녀의 생가와 수녀원도 방문했다. 특히 생가에 있는 소화 데레사 성녀의 방은 작았지만 이상하게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욱 더 커 보였다. 나는 수녀원에서 같은 수녀들의 질투와 파벌임을 이겨낸 소화 데레사가 대단하게 생각되었다. 나도 소화 데레사 성녀의 가르침을 본받아 주변의 작은 것부터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나의 할머니 세례명도 소화 데레사이므로 할머니께 큰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드렸다.

최지민 베네딕도(주일학교 초등부)

2014년 주일학교 행사



청소년주일 체육행사(2014년 5월 11일)

성소주일 및 청소년주일을 맞이하여 제기동 사회복지관에서 체육행사를 가졌다.



가을음악회(2014년 10월 4일)

청량리성당 가을음악회에 중고등부 및 초등부학생들이 각각 참여하였다.



7지구 CYA 행사(2014년 10월 26일)

면목초등학교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7지구 CYA(가톨릭청소년연합회)에 중고등부학생들이 참여했다.



은총잔치(2014년 5월 10일)

사순기간동안 평일미사 참례와 과제물을 통하여 부활을 준비해 온 어린이들의 은총잔치가 열렸다.



여름캠프(2014년 7월 28~30일)

강원도 원주 용소막성당에서 2박3일간 열린 여름신앙학교·캠프에 초등부 30명, 중고등부 30명이 참여하였다.



성탄예술제(2014년 12월 27일)

대림기간동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각 학년별로 준비한 성탄예술제가 펼쳐졌다.

엔젤성가대 2014년 정기연주회 개최



2014년 10월 4일 청량리성당 엔젤성가대가 주최한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성지 피렌체와 아씨시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해외 성지순례를 떠나는 마음은 마냥 행복하고 들떠 있었다. 우리의 여정은 스위스, 이탈리아(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아씨시, 로마), 프랑스(루르드, 파리) 세 나라를 여행하는 순례였다. 그 중에서 피렌체와 아씨시의 여정을 소개한다.

우리 순례여행자들은 베네치아에서 약 3시간 걸려서 꽃의 도시인 피렌체에 도착했다.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도 한다. 우리는 제일 먼저 많은 골목길을 지나 두오모 성모마리아 성당에 갔다. 두오모 성당은 '가능한 장엄하게 더욱 더 화려하게' 라는 말처럼 1292년에 착공되어 1436년에 완공되기까지 175년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이며 캄비오가 설계를 하였다. 106m의 높이를 자랑하는 돔은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으로서, 1420년에 착공 후 14년간 건축공사를 하였으며, 그의 사후인 1461년에 완성이 되었다고 한다.

대리석 모자이크 장식의 벽체가 장관을 연출하며, 전성기의 고딕 아치형 천정이 반쳐져 있다. 관광객들이 직접 돔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올 때 본당 신부님이 주신 봉투 덕분에 그 유명한 본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두오모 성당을 뒤로 하고 아씨시로 이동하였다.

아씨시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다. 이곳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태어났고 또 묻힌 곳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생가와 클라라성당, 다미아노 성당을 둘러보았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부호 상인의 아들이었고, 클라라 성녀는 귀족가정의 딸이었는데, 일생을 가난하게 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린 성인, 성녀의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날 존경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교황님처럼. 그래서 나도 그런 길을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순례자들이 순례를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승철 마르코(주일학교 초등부)